

North Korean Defectors in Diaspora

*Identities,
Mobilities, and
Resettlements*

EDITED BY HAERAN SHIN

탈북 디아스포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의 탈북민의 정착과 삶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Contents

Acknowledgments	ix
Introduction	1
<i>HaeRan Shin, Kyung Hyo Chun, and Hyunuk Lee</i>	
SECTION 1: KEEPING MOVING—NORTH KOREAN DEFECTORS	21
Chapter 1: From Linked to Linking Agency: Transnational 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Japan	23
<i>Hyunuk Lee and Seok-hyang Kim</i>	
Chapter 2: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Who Resettled in South Korea after Having Left the South	57
<i>Heujeong Kim</i>	
Chapter 3: “I Opened My Eyes”: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Journey from Precarity to Empowerment	83
<i>HaeRan Shin</i>	
SECTION 2: LIFE OUTSIDE THE KOREAN PENINSULA—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S	105
Chapter 4: Do They Get Along?: Interaction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 Migrants, and Korean Chinese Migrants in London	107
<i>HaeRan Shin</i>	
Chapter 5: Communi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through Transnational Migration	131
<i>Heujeong Kim</i>	

Chapter 6: De-bordering North Korea: Remittances and Global Networks	153
<i>HaeRan Shin</i>	
SECTION 3: NORTH KOREAN IDENTITIES RECONSTITUTED AS THEY MUDDLE THROUGH	179
Chapter 7: Representation and Self-Presen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mage, Discourse, and Voices	181
<i>Kyung Hyo Chun</i>	
Chapter 8: North Korean Nation-Building outside North Korea	201
<i>HaeRan Shin</i>	
Conclusion: Looking to the Future	223
<i>HaeRan Shin and Kyung Hyo Chun</i>	
Index	235
About the Editor and the Contributors	239

탈북 디아스포라 (Diaspora)

- 한국이 최종 정착지가 아닌 탈북민 디아스포라의 과정
- 이주민 연구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고찰 필요
- 질적연구방법으로 탈북민의 이동, 정착, 정체성의 역동성을 깊이 있게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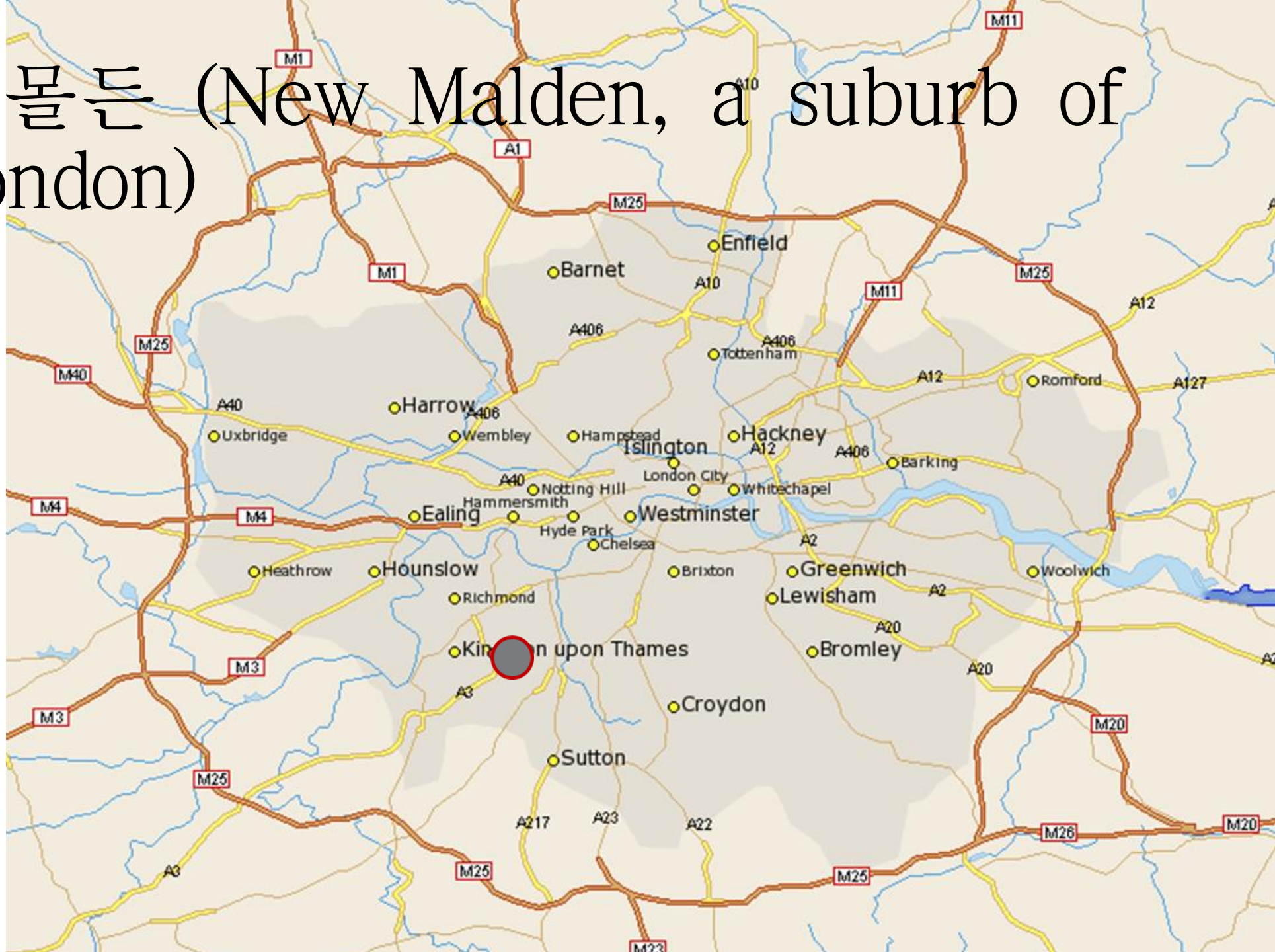
탈북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탈북민 이주를 통한 탈분단 한반도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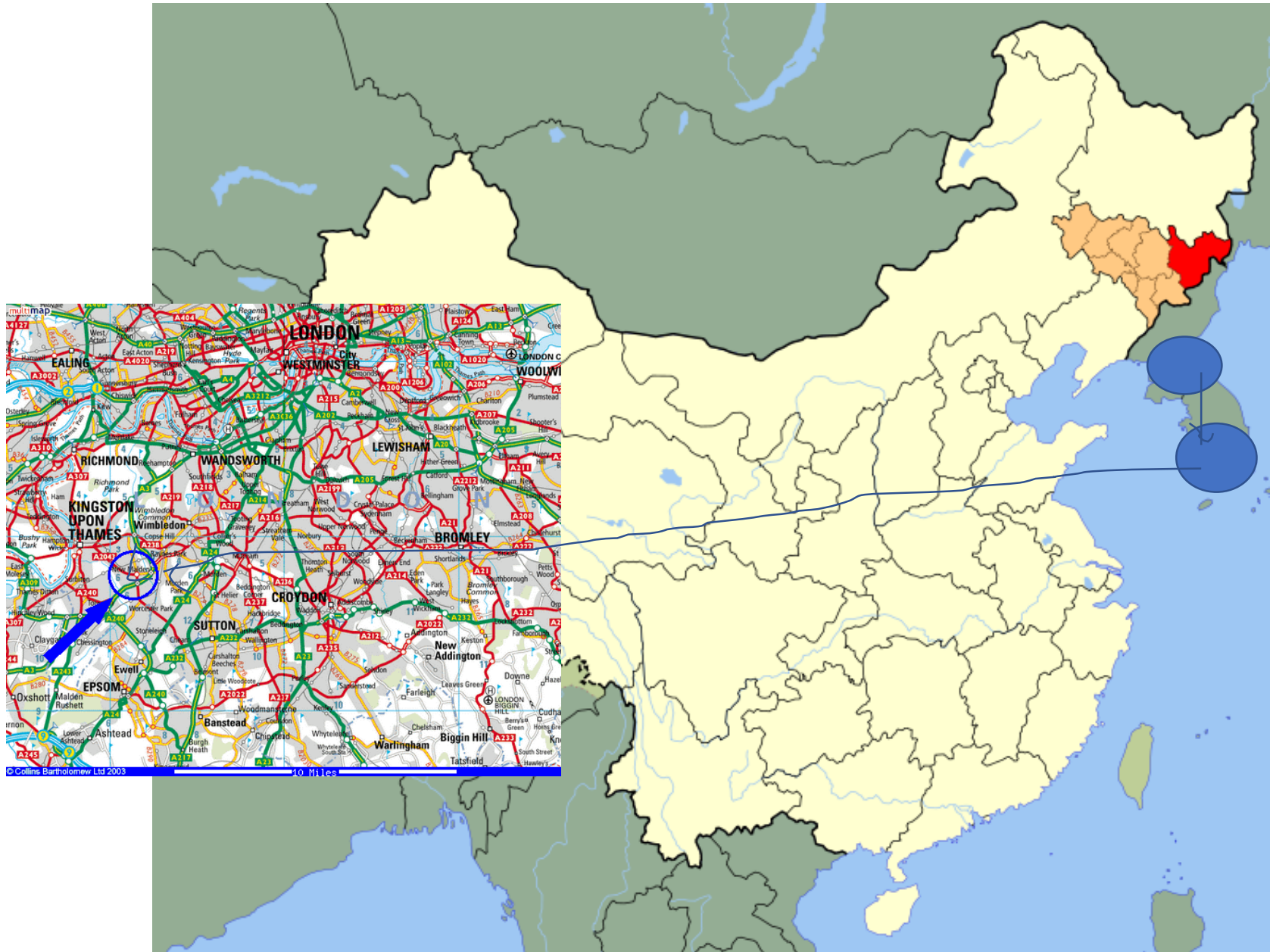
- 인구비율이 더 현실적
 - 한국 인구 대비 탈북민은 극소수 (5000:3)
 - London 한인타운 15-30: 1 (한국인 10,000-15,000명, 북한인 700-1,000명)
 - Los Angeles 한인타운 1,000: 1 (한국인 50,000명, 북한인 50명)
- 교류가 강화된 한반도에서 한국인, 북한인이 교류하는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이점

뉴몰든 (New Malden, a suburb of London)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장소:





런던 한인타운 뉴몰든 (New Malden)

HOME » FINANCE » **PROPERTY**

Why is New Malden home to more North Koreans than any other place in Europe?

A look at the south west London suburb's thriving Korean community



Yeonmi Park in Seoul, seven years after escaping the murderous regime in North Korea Photo: JeongMee Yoon



By Charlie Parrish
10:27AM BST 06 Oct 2014

Follow 9,422 followers

Property
News » North Korea »
UK News » Lifestyle »
Saturday Magazine »

In October 2014, **The Telegraph Magazine** published a feature detailing the astonishing plight of activist **Yeonmi Park**. Seven years



WORLD

See the London Suburb Home to One of the World's Biggest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ies



South and North Korean women play the gayageum during the anniversary party of the Korean Nationality Residents Association in New Malden, London on Jan. 23, 2016. Tara John for TIME

THIS IS THE START OF A FAST MOVING E-COMMERCE BUSINESS WE'RE HELPING GROW.

Find out how >



DHL
EXCELLENCE. SIMPLY DELIVERED.

연구 방법

- 2011 뉴몰든 현장연구 시작
- 2014 북한교회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 2017 참여관찰, 주요 단체 관계자들 심층인터뷰
 - 탈북민 자녀 한글학교
 - 한인 단체, 탈북민 단체 행사: 영국 탈북민 협회, (탈북민) 아리랑 무용단, 런던 한국인 협회, 영국 평통, 한국 노인회, 지역축제
- 2019 뉴몰든 탈북여성 심층인터뷰
엘에이 한인타운 현장조사

탈북 디아스포라의 역동성

1. 이동, 이주 과정에서 탈북 여성의 역량 강화
 - 가정경제와 2세 교육, 문화활동을 위한 단체 활동의 주축
 - 불안정성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역량 강화
2. 제3의 장소에서 한국인과의 관계
 - 지정학적 질서와 한인타운 내 위계관계
 - 동화와 초국적주의의 진화
- 3. 새로운 북한을 상상 - 북한 밖에서 북한 만들기
 - 북한의 국경통제와 탈북민의 송금, 망명정부
 - 미래 북한 꿈꾸기

1. 이동, 이주 과정에서 탈북 여성의 역량 강화

- ▶ 탈북민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하였나?
- ▶ 이 탈북민 여성들의 젠더역할에 기반한 적응과 순응이 어떻게 역량 강화로 이어졌나?
- ▶ 북한에서
 - ▶ 가정 내 돌봄,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
 - ▶ 익숙한 조직생활

뉴몰든 (New Malden) 탈북민 여성

- 고난의 행군 (1994-1998)
- 비공식적 경제활동 (장마당) 경험
- 탈북 → 중국이나 태국
- 한국에서 생활
- 탈남 → 영국
- 영국 난민정책 변화와 한인밀집지역 변화

북한에서 가정 안팎의 역량 강화

- 가정경제 보조자로서 스스로를 인식
 - 북한의 가부장제와 1946년 남녀평등 법안
 - 결혼 후 직장 그만 둠
- 1994-1998 경제위기
 - 배급은 남편이름으로: 일이 없어도 직장에 나가야 했던 남자
 - 여성들은 비공식 경제활동

위기 대처 학습

- 비공식적 생존 전략의 중요성

- 우리는 온실 속 화초 같았어요. 정부가 우리한테 팬티까지 제공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배급이 중단되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앓아서 굶어 죽었어요. 이제는 다르죠. 사람들이 장마당을 경험했으니깐요. 또 그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가만히 앓아 굶지 않을 거예요. (50대 북한 여성, 2019년 1월 8일)

- 전통적인 여성 지위에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 주체로

- 유연성, 역량강화

탈북 후 한국에서 차별 경험

- 같은 민족의 차별
 - 한국은 같은 말 쓰는 외국 같았어요. 외국에서 차별받으면 이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 1월 11일, 30대 북한 여성)
- 한국이 정착지로서 인기 낮음
 - 송금 보내기에 어려움
 - 하지만 정착하기 쉽고 빠른 곳

영국 생활에서 변화

- 적극적 출산
- 영국 보수정권하 (2010--)에 난민복지 지속적 감소
 - 탈북자들 직업을 가지기 시작 (한국식당, 식료품점, 청소회사, 건설회사..)
- 조선족 중국으로 돌아감
-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기 시작

전일근무 시작, 경제적 영향력 확대

- 탈북민 여성들이 주된 수입원으로 성장

- 남편은 자주 일을 그만뒀어요. 남동생도 여러 번 일을 바꿨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청소를 하더라도 노동에서 얻는 돈은 소중하다고 말했지요. 전 푸드트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 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덩치가 작아서 막노동은 할 수 없다면서 좋은 일을 찾고 있습니다. (40대 북한여성 2019년 1월 14일)

- 저임금 일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의지

- 더 나은 일자리를 추구하고 개인의 개선에 시간을 투자 할 수있는 기회를 제한

탈북민/한인 지역사회 내 활동

- 탈북민 협회 갈등 심화됨
- 탈북민 여성들은 교육, 문화예술, 노인협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존재감 커짐
 - 한인회, 탈북민 협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 조직 활동

- 우리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조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조직활동에 참여했어요. 탈북민 협회 지도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지요. 그래도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참여해요 (2019년 1월 14일, 40대 북한 여성)
- 행사, 조직활동에서 존재감 증가
- 2세를 위한 한글학교에서 어머니들의 중심적인 역할



학술적 함의

- 북한 여성의 적응태도는 생존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에 필수적
-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
- 조직활동의 경험의 영향
- 사회적 항해의 뜻하지 않은 결과

2. 제3의 장소에서 한국인과의 관계

동화와 초국적주의

- 동화 이론 (assimilation theory):
 - 192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지배적인 이주연구 이론
 - 이주민의 동화 정도가 그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 초국적주의 (transnationalism)
 - 동화의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
 - 동화되지도 않고 동화할 필요도 없다
- 많은 국가들은 아직 동화정책을 추구
 - 대체 개념으로 '사회통합'

비판과 제안

- 현실에서는 동화와 초국적주의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힌 모습
- 대북 정책과 인식은 강력한 동화주의에 기반

- 비판 지정학 (critical geopolitics) 연구
 - 이주: 국가/나라의 재영토화
 - 일상과 담론 속에서 형성되는 국가/나라 영토성
 - 세계화 시대의 국가영토를 벗어난 영토성에 대한 주목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이주민들의 동화와 초국적주의의 역동성 속에 재협상되는 국가 영토성에 대한 정치학적 해석
 - 동화, 초국적주의는 국가의 영토성이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일상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는 생산물

뉴몰든 노동시장에서 동화

- 고용주인 한국인의 방식에 적응
 - 서빙, 요리, 청소, 아이 돌봄, 공사, 이삿짐, 집수리
- “여기 우리[북한인] 다 떠나면 한국 가게 다 문 닫을 거예요. 조선족 있던 자리에 북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2017. 9. 21 면접, 탈북 여성, 식당, 40대)

단체들의 파트너쉽과 협력

- 동화

- 한국 단체활동을 벤치마킹하여 단체를 만들고 한국 단체가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영토의 해체와 약화 과정
- 동시에 탈북민 고유의 단체를 만들고 한국 단체 활동에 다수의 참여자가 되는 일종의 영토 확장으로서 재영토화 과정

- 한국인과 탈북민 단체들의 파트너쉽과 협력

- 런던 한인회(이하 한인회) 광복절 행사, 대한 노인회 영국지회 (이하 노인회) 바자회, 한복 패션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 지역협의회 (이하 평통) 행사, 런던 한인 합창단의 공연 등에 다수의 탈북민들이 참가

재영 탈북민 연합회 송년회



공동행사의 필요와 갈등

- 탈북민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한국인들의 목소리
- 대한 노인회 영국 지회가 한국 본회에 요청하면서 영국 국적,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
 - 어떤 행사건 한국인이 하는 행사에 북한인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한국인이 하는 행사에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 10. 1. 한국 여성, 60대)
- 한인회는 48명 임원 중에 두 임원(부회장과 자문의원)을 탈북민으로 임명
- 평통 임원은 44명인데 탈북민 한 명을 포함하도록 시도

단체 임원 구성에서 통합

- 대한 노인회 영국 지회가 한국 본회에 요청하면서 영국 국적,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
- 한인회는 48명 임원 중에 두 임원(부회장과 자문의원)을 탈북민으로 임명
- 평통 임원은 44명인데 탈북민 한 명을 포함하도록 시도

3. 새로운 북한을 상상 – 북한 밖에서 북한 만들기

영토 밖 나라 건설 (Extra-territorial nation-building)

- 떠나온 조국의 변화한 모습에 대한 난민들의 기원, 상상, 담론을 통해 상징적, 물리적 장소 만들기
 - 이주자들의 활동과 담론으로 건설하는 나라
 - 나라: 상상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문화적 존재
- 이주자 밀집지역, 이주자 네트워크의 역할

탈북민의 북한 만들기

- 탈북민의 방문과 영구귀환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 북한의 상황을 늘 의식, 미래 북한을 그려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정체성 (North Koreanness)이 발전하면서 나타남
 - 달라질 미래 북한에 대비하는 존재로 스스로 생각

북한으로 송금



한국은 ‘형님’인가?

- “형님네가 모범을 보여야..” (한인회 갈등을 두고 탈북자협회 간부가 한 말)
- “큰 집, 작은 집..” (평통 간부의 말)
- “좀 잘 산다고 형님이예요? 이제는 도저히 못듣겠어요”
(탈북민들은 위계적 표현이라고 불편함 표시)

지정학적 변화의 역할

- 중국의 부상
- 영국의 난민정책 변화
- 한국 정권교체

1. 흐름 속 북한 만들기: 국제연대

- 국제 탈북민 연대
 - 언론의 관심 필요, 언론활동
- 대안적 주권을 세우는 활동으로 북한의 새로운 버전을 추구
 - 사회적 담론적 커뮤니티인 북한 건설
 - 북한 밖 북한의 재영토화
 - 대안세력으로서 재 유럽 탈북민 자부심

국제연대활동을 통한 담론 형성

- 북한 민주화운동 인사
- 정당 설립 의지
- 망명정부 논의 중

망명정부 구상

- “한국에서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바뀐다...당사자는 우리인데. 정치하는 분들 때문에 들러리로 서게 된다. 망명정부가 있어야 남한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보수정권에서는 민주평통과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 “지금[정권교체]이 위기다. 이 위기에 인민들을 동원하여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 미래 북한을 위한 담론활동

고유의 정체성 필요성 증가

- 같은 민족간 차별 이유
- 뉴몰든에서 줄어든 차이
 - 정당성:
 - “우리가 조국을 떠난 것처럼 한국사람들도 자기 조국을 버리고 온 것이니 다 같은 처지 아니에요?”
(2017. 7. 21. 탈북 여성, 50대)
 - 복지 혜택
 - 북한과의 끈 유지: 송금, 전화

런던 한겨레 학교

- 탈북민 2세를 위한 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1시30분-5시
- 영국 내 한국-북한 정체성을 둘 다 유지하려는 초국적주의
 - “우리 것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7. 11. 11. 탈북민 남성, 40대)
 - “이렇게 흩어져서 동화되다가는 북한사람은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2017. 11. 18. 탈북민 남성, 40대)
- 북한인들 고유의 것: 새로운 버전의 북한
 - 북한이 세계 안전의 위협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은 출신국가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짐
 - 인공기에 대한 대화



우 리 는 친 구 (2017 년 10 월 14 일)

두꺼비와 개구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길을 지나고, 숲길을 지나고, 시냇가를 지나 두꺼비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 내 단추가 어디 갔지?”

두꺼비 옷의 단추가 없어졌습니다.

“밖에 나가 찾아보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시냇가에서 단추를 발견했습니다.

“야, 단추 찾았다!”

“아니야, 그건 내 단추가 아니야.

내 단추는 노란색이야.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야, 단추 찾았다.!”

개구리가 숲속에서 노란단추를 찾았습니다.

한글학교를 둘러싼 갈등

- 한국 한글학교 사람들은 영국 내 한국 커뮤니티의 통합을 위해 탈북민들은 한국인에게 흡수되어야 한다는 주장
- 탈북민들의 고유 정체성 더욱 자극
 -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깃발을 걸고 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 “전 국기[인공기]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미래 북한에 대한 상상과 담론

- 미래지향적 기대

- 탈북민들의 미래, 북한의 미래,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기대
- 변화한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했고, 영국사회의 일원이자 탈북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을 뜻하기도

학술적 함의

- 개인의 삶이 권력, 특히 지정학적 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남
- 통일 후 이주와 정착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함
 - 동화와 초국적주의의 복잡한 얽힘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
- 강력한 동화주의 정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 세심하고 참을성 있는 접근
 - 사회통합에 대한 긴 호흡